

주가	환율	금리
-25.84	-4.70	보합
1,225.83 (코스피지수)	956.50원 (원/달러)	4.94%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64.78	(-13.33)
다우 (19일)	10,942.11	(-72.44)
나스닥 (19일)	2,110.42	(-19.53)
넷케이	14,648.41	(-211.94)
엔-달러 환율 (도쿄 17:00기준)	114.98엔	(-0.49)
유로 달러 환율	1.2583달러	(-0.47)
3년만기 회사채	5.22%	(+0.01)
물금리	4.20%	(+0.01)

농협전남본부 유통활성화에 377억 지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최근 유가상승 및 환율하락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협에 농산물유통활성화자금 377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된 자금은 환율하락으로 원가손실을 입고 있는 수출분야 167억원을 비롯해 14개 항목에 배정됐다.

지원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유통시설확충 35억원,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투자지원 28억원, 공동비제조장 시설자금 16억원, 농협품질인증 및 GAP사업 활성화 25억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20억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체계구축 17억원, 공공장 사업활성화 12억원, 연합마케팅사업 활성화 8억원 등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증권예탁원, 외화채권-외국통화 동시결제

증권예탁결제원은 20일 외환은행과 '외화표시채권 결제를 위한 외화결제은행 지정 및 업무제휴 조인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발행되는 외국기업의 외화표시채권(일명 김치본드)과 외국통화간 동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화표시채권 동시결제시스템은 원화베이스로 채권과 대금을 분리해 결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제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처럼 모든 국제통화에 대해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미국계 증권사 베어스텝스가 이달내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3억~5억달러 범위에서 달러표시채권을 발행할 예정이어서 이 서비스의 최초 적용대상인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청 여성기업 책임관리 시행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여성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전달하는 '여성기업책임관'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광주·전남지역은 5개 기관 5명이 책임관으로 활동하며, 전국적으로는 189명에 달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역내 총 사업체의 38.6%인 8만6천개의 여성기업들이 창업과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

아이스 홍시 제조업체 '함평 감나루' 중국산 가공 감 세계화 나섰다

中 최대 관광업체 천마집단과 MOU 체결

아이스홍시 제조업체인 함평군 감나루(대표 백성준)와 중국 최대의 관광업체인 천마(天馬)집단(총재 강맹·康猛·50)이 손을 잡고 중국산 가공 감 세계화에 나선다.

감나루 백성준 대표는 지난 18일 함평군 신광면 본사에서 천마집단 강맹 총재와 중국내 합작회사 설립건에 관한 투자협약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투자협약의 주요 골자는 ▲감나루의 기술과 천마집단의 자본이 결합된 합작회사를 중국 산둥성에 설립 ▲중국산 감에 대한 가공처리, 중국내 판매 및 수출 ▲천마집단의 현금투자에 대응하는 감나루의 탈산(脫澱·감의 껍을 성분 제거하는 기술)·제조기술이전 등이다. 이번 협약에서 천마집단은 향후 1개

월내에 감나루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1차분 투자액 3천만 인민폐(36억원) 가운데 1천만 인민폐(12억원)를 역시 1개월내에 단기 기동자금으로 현금투자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감나루의 지분은 기술 및 기술이전료를 합쳐 40~45%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년여 동안 50여차례 중국 베이징을 드나든 백 사장의 끈질긴 노력 때문에 성사됐다. 천마측은 세계 감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감(연간 350만)을 이용, 탈산처리된 홍시·반건시·아이스홍시를 광대한 중국시장에 내놓으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판단해 이날 전격적으로 함평을 방문했다.

강 총재는 "현재 전 세계에서 관광과 관련된 수십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농업에 대한 백 사장의 집념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신기술에 반해 합작에 응했다"고 강조했다.

백 사장은 "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겨냥, 체계적인 생산과 마케팅을 전개하면 중국의 대표적인 아이스과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감잎차, 감주스 생산은 물론 녹차·마늘에서 뽑거나 쓴



지난 18일 함평 감나루 본사에서 강맹 천마집단 총재(왼쪽)와 백성준 대표가 투자협약서에 서명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성분을 제거하는 분야의 협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광군에 있는 감나루 농원을 방문한 강 총재는 중국산 감나루에 비해 훨씬 키가 작으나 감은 1.5배 이상 더 열린다는 것에 놀라며 생육방식에 관심을 표했다.

올해로 설립 20년을 맞은 천마집단은 중국천마여유실업공사를 기초로 묶여진 대형기업으로, 국내외에 180여개의 관광단체를 거느린 천마관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관광개발에서부터 호텔관리, 부동산개발, 관광지구관리, 물자관리, 투자관리, 에너지공급, 관광식품공

업, 매체광고 등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한편 영광원전 시스템엔지니어로 근무하던 백 사장은 1994년 감과 인연을 맺었으며, 2년여의 연구 끝에 껍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고 압력과 온도를 맞춰 급냉·해동하는 탈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어 '아이스홍시' 등을 통해 '대박'을 터뜨렸다. 특히 백 사장은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포럼과 중소기업기술혁신대상을 수상했고, 올 초 전국 19개 농업벤처기업 대표이사 모임에서 처음 조직한 농업벤처협의회의 회장에 선출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세계최고 권위 내구레이스 '르망24시' 금호타이어 두번째 출전만에 3위 입상

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가 세계 최고 권위와 규모를 자랑하는 자동차 내구레이스인 '르망24시'에서 두 번째 출전만에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금호타이어는 20일, "자사가 후원하고 있는 금호미라클모터스포츠팀이 지난 17일~18일 프랑스에서 열린 '르망24시(24 Heures du Mans)' P2클래스 (포틀러카와 같이 자동차 경주를 위하여 제작된 레이싱 전용 차량경기)에서 총 50개 참가팀 중 3

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르망24시는 F1, WRC(World Rally Championship) 등과 함께 세계 3대 모터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1906년에 첫 대회를 개최,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가진 투어링 분야 세계 최고 권위 대회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레이싱 완주 및 입상을 통해 금호 엑스타 제품의 우수성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타이어 생산 차질

임단협 결렬... 노조 부분 파업 돌입·30일 총파업 예고

금호타이어측 노조가 20일 오전부터 각 근무조별로 임단협 총력승리대회를 갖고 1~2시간 동안 시업(근무 시작시간)을 늦추는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앞서 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참여 노조원 3천727명 가운데 2천904명(77.9%)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4일부터 12차례에 걸쳐 진행

한 임단협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교섭중단을 선언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안도 도출하지 못한 채 19일 조정이 종료됐다. 노조는 임금 9.1% 인상, 정년 연장, 노조전일자 추가, 성과급 지급, 복지관 건립 등과 함께 단체협약 52개항 개정 및 3개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광주공장의 낮은 생

산성 등을 내세우며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대부분의 노조측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특히 유류와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최근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부분파업만 해도 생산량이 40~70%씩 줄어드는 등 회사측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부분파업에 이어 사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22~28일에도 부분파업을 벌이고 29일 총파업 전야제 뒤 30일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하루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경우 타이어 2만6천208본, 10억6천600만원 생산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전자, 세계 최초 4도어 '지펠 콰트로' 국내 출시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기술, 디자인상을 잇따라 수상한 세계 최초·유일의 4도어 독립냉각 냉장고 '지펠 콰트로'(Zipel Quatro)를 국내시장에 본격 출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미국시장에 먼저 출시돼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제품은 좌우의 대형 저장실과 별도로 하단에 설치된 2개의 서랍식 저장고를 냉동·냉장실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계절적 환경이나 식생활 패턴에 맞춰 냉장실과 냉동실 구성을 1:3~3:1로 자유롭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대용량 냉장실의 경우 습도를 73%로 유지하고 0~5℃ 급속냉각 기능을 적용, 야채나 과일과 신선도를 기존 제품에 비해 3~4배 장기간 지속시켜준다. 또 냉장실의 냉기를 재냉각해 냉동실로 보내는 기존 제품과 달리 각각의 저장공간이 별도의 냉각기를 갖추고 완벽하게 차단돼 있어 냉장실에 보관된 음식물의 냉세가 냉동실 열음이나 음식물에 배 들지 않는다. '지펠 콰트로'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



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2006'에서 국내 생활가전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최고 혁신상(Best Innovations Award)을 수상,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지펠 콰트로'는 모두 4개 모델로 판매 가격은 인테리어 제품 3개 모델이 260만~320만원대이며, 일반형 제품이 230만원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기만 사용하는 태양초 고추건조기

20년 경험과 뛰어난 기술로 탄생한 최고의 유일건조기

유일건조기만의 특징

1. 전열 코팅으로 뛰어난 보온성, 방열성, 내열성
2. 100% 태양초 사용으로 맛과 향이 우수함
3. 1.5배 높은 건조 효율, 건조시간 단축 효과
4. 1.5배 높은 건조 효율, 건조시간 단축 효과

건조기 구매를 망설임 필요 없습니다

유일건조기 구매하시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 1.5배 높은 건조 효율, 건조시간 단축 효과
- 100% 태양초 사용으로 맛과 향이 우수함
- 1.5배 높은 건조 효율, 건조시간 단축 효과

한국미래농업모집 : 출시 7일 후가 한정 판매 ₩150,000 (2006년 6월 30일까지)

주유일

대표: 061-322-3008 팩스: 061-322-4000
 판매부서: 061-322-3008 영업: 061-322-1100

최신 출시된 SONY의 명품들...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최고의 영상 품질

소니 광주전시판매장

☎ 10021522-2000

소니 공식 서비스센터

☎ 10021514-3000